

# 김현미 장관, “생활물류법 제정 필요성·화물차 안전” 강조

## - 12일 화물업계 간담회서 생활물류법 제정·화물차 안전대책 등 현안 논의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(목)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\*들과 간담회를 갖고,
  -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「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」 제정 필요성과 화물업계 지원방안,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.
- \*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김옥상 회장,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운진 회장,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
  
- 김현미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「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」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,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,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·건의사항을 듣고,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 하였다.
  - 또한, 김현미 장관과 화물업계 단체장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·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  
- 김현미 장관은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하여,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,
  - 화물운송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2020. 11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